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야외 활동 시간은 34분으로, 미국 어린이(119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TV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 3~9세 바깥활동 하루 34분

미국 3분의 1 수준...방과 후 공부·TV 시청은 1시간 넘어 국립환경과학원 "어린이, 유해물질 민감...체계적 관리 할 것"

우리나라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야외 활동 시간은 34분으로, 미국 어린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세 어린이의 경우 야외 활동시간은 36분에 불과했지만, 학교 외 학습시간은 1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에 다니고 TV시청이나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핸드북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8000여명을 성·나이·연령별로 나눠 23개의 노출계수로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노출계수는 환경오염물질 노출량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변수를 말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3~9세 어린이의 평균 야외 활동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으로 미국 어린이(119분의) 29% 수준에 불과했다. 캐나다 어린이(100분)와 비교해도

34% 수준이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실내 활동 시간이 많은데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영어 학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많아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9세 어린이의 야외 활동시간은 36분에 불과했지만, 학교 외 학습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 TV 시청시간도 1시간이 넘었으며,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 시간도 34분에 달했다. 밖에서 놀기보다는 TV나 컴퓨터게임을 훨씬 즐긴다는 것이다.

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인 호흡량의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는 미국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기록했다. 호흡률은 호흡기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평가할 때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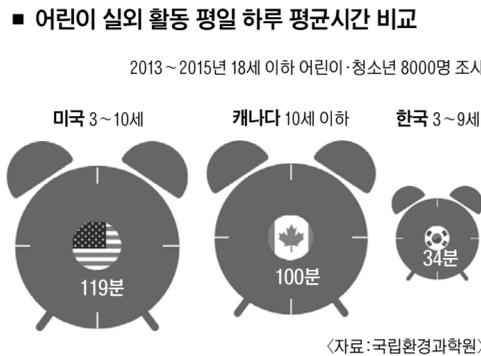
5~6세 호흡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평균 10.8ml/일이었으며, 일본은 9.9ml/일, 미국은 12.16ml/일이었다.

손과 물건 빨기 행동 양상의 경우 2세 이하에서 손 빨기는 1시간당 3.9회, 물건 빨기는 4.4회였다. 빨기 행동의 지속 시간은 시간당 6분에서 8분 30초 정도로 미국 어린이의 11분에 비해 다소 짧았다.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가 손이나 물건을 빨 경우 부모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분석했다.

우리나라 1~2세 어린이의 하루 식품 섭취량은 곡류 23.5g, 채소 7.8g, 과일류 10.9g, 육류 1.9g이었다. 반면에 미국 1~2세 어린이의 하루 식품 섭취량은 곡류 6.4g, 채소 6.9g, 과일류 6.2g, 육류 4.1g 등이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미국과 비교해 곡류와 과일류 섭취량은 각각 3.7배, 1.8배 높고, 육류 섭취량은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채소 섭취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노출계수
환경오염물질 농도와 체중, 호흡률, 노출기간·빈도 등 변수를 조사한 값으로 제품관리, 환경기준 설정 등에 쓰인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무의식중에 노출되고 신경·면역·생식 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해서 환경오염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어린이 노출계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물질 제품 관리, 환경기준 설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은 국내 주요 연구소,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library.nier.go.kr)에도 공개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친환경 농부장터' 내일 빛고을노인타운서

10월까지 매주 수·목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농부장터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다.

광주시 남구 대촌지역 등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장터에 선보이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남구는 오는 1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 앞 광장에서 '로컬푸드 농부장터' 개장식을 열고 장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터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열린다.

로컬푸드 농부장터에서는 남구를 비롯한 화순, 나주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

산농가 30여 곳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상추, 배추 등 엽채류와 근채류, 과채류, 곡류, 농산물 가공식품 등 80여 품목이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판매대에 놓인 농산물을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고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터에 선보이는 농산물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탓에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중 유통가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친환경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도록 농부장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올해 하반기 진월동 국제테니스장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062-607-2721.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美 연구팀 "살충제 계속 노출되면 루게릭병 위험 6배"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치명적인 질환인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살충제를 포함, 3가지 환경독소 노출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과대 루게릭병 클리닉의 스티븐 가우트먼 박사는 살충제인 시스클로르단, 곰팡이 제거제인 펜타클로로벤젠, 난연제(flame retardant)인 폴리브로미네이트 디페닐 에테르(PBDE) 노출이 루게릭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헬스데이 뉴스와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루게릭병 환자 156명과 일반인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 및 자택에서의 환경독소 노출을 조사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모

두 122가지의 환경독소 혈중수치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가우트먼 박사는 말했다.

살충제 시스클로르단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루게릭병 위험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곰팡이 제거제 펜타클로로벤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루게릭병 발병률이 2배, 가구와 직물 제품에 난연제로 쓰이는 PBDE 노출된 사람은 2.7배 높았다.

이 밖에 군 복무도 루게릭병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유는 알 수 없다고 가우트먼 박사는 말했다.

5~10%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우트먼 박사는 말했다. 유전적 요인 중 약 3분의 1이 C9orf72라고 불리는 유전자 변이다. /연합뉴스

"피부 노출 줄여 야생 진드기 감염 예방을"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 야생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야외활동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SFTS는 제4호 법정감염병으로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작은소창진드기에 의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38~40도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고 구토, 설사, 식욕 저하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근육 경련·착란 등의 신경증상, 혼수상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감염 후 1~2주 이내에 혈소판 농도 및 장기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70세

이상 노령층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79건이 발생해 21명이 사망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36건, 55건이 발생해 17명과 16명이 숨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해 12일 제주에서 첫 환자 발생이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작은소창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분포하기 때문에 정해진 탐방로와 산책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야외 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풀밭에서는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말고 돛자리를 사용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몸을 씻고 입었던 옷을 세탁해야 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k@

4층 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

- 감정가 (분할 시) → 56억
- 용자 → 26억(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38억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업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 8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업
 -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1천 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북구 삼각동 (6층 상가건물)
 - (토 1183평, 건 6780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완벽, 6차선 도로 접
 - 삼각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단지
 - 감정가 170억 - 최자가 170억
- 동구 동명동
 - (토 211평, 건 6000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4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측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자가 13억 7천
- 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577평, 건 424평)
 - 1층 (주거용,키움)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약 10m 도로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자가 4억 8천
- 서구 화정동 (6층 건물 나이트)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테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클럽중
 - (나이트 직영, 테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자가 49억 7천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4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완비
 - 감정가 12억 - 최자가 12억
- 북구 운암동 (5층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1층~5층 (사무실), 6차선 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자가 5억 9천

010-6832-97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인양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